

| 7월31일 Market Index |                       |           |                     |
|--------------------|-----------------------|-----------|---------------------|
| 코스피                | 6595.45<br>(+1001.89) | 코스닥       | 719.76<br>(+74.98)  |
| 금리 (미국 9년)         | 3.758<br>(-0.073)     | 환율 (원-달러) | 1439.00<br>(+15.00) |

m-커버스토리

# 쏟아지는 프리미엄 요양 혜택 줄어드는 중간 가격대 선택지

## 돌봄 모델 양극화

보험사, 요양시장 본격 진출  
프리미엄 중심 선점 경쟁 치열  
중간 가격대 공급·혜택은 공백

주요 보험사가 선보이는 도합형 요양원이 늘면서 1·2인실 등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월 이용료가 일반 시설의 2~4배인 250만~480만원대에 형성돼 월 100만원대 초반의 기존 시설과 프리미엄 시설 사이의 '중간 가격대 돌봄'이 공백을 보이고 있다. 돌봄 시설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지난 2015년 59만5974명에서 2024년 125만2649명으로 9년 새 110% 늘었다. 현재 KB라이프·신한라이프·삼성생명·하나생명·KDB생명 5개 생명보험사가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 사업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보험사 계열 요양시설은 상급침실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들 시설 이용자 가운데 1인실은 41.9%, 2인실은 54.9%로 둘을 합친 비중이 96.8%였다. 전국

요양시설 이용자의 1·2인실 비중(20.3%)보다 4.8배 높다.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월 이용료는 250만~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월 100만원대 초반)보다 2~4배 비쌌다.

공개 가격을 같은 이용자 조건으로 맞춰도 간격은 컸다. 장기요양 1등급, 30일 입소, 일반 본인부담률 20%를 가정해 2026년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55만8420원에 요양비교 플랫폼에 게시된 시설별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를 더한 결과 1인실 예상 부담은 ▲미사사랑요양원 127만8420원 ▲KB골드라이프케어 은평빌리지 342만3420원 ▲광교빌리지 351만3420원 ▲신한라이프케어 솔라채 홈 미사 489만3420원이었다.

다만 이는 공개 비급여를 단순 합산한 30일 예상치로 실제 청구액은 아니다. 등급과 입소일수, 감경 여부, 약값·이·마용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치·인력·공간·서비스도 서로 다르다.

차이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장기요양 수가보다 비급여에서 벌어졌다. 같은 1등급 이용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55만8420원이지만 30일 기준 1인실 상급

침실료는 비교 시설별로 30만원부터 375만원까지 달랐다. 보험연구원은 도심 부지의 높은 땅값과 조달금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급침실료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의 양보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가격 문제와 맞물린다. 한국은행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시설에는 1년 넘는 대기가 생기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을 '유료 공급' 부족으로 진단했다. 2024년 생애 말기 고령인구 대비 잔여 정원 비율은 서울 3.4%, 전북 12.4%로 지역 격차도 컸다.

보험사 진입은 도심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상급침실 중심의 고가 모델만 늘어서는 중산층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도지·건물 소유와 시설 운영을 분리하고 장기 임차·마스터리스와 헬스케어 리츠 등을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춰 중간 가격대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KTX-SRT, 내달 통합 운행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가 9월부터 통합된다. 명칭은 KTX로 통합 운행되며 향후 3년간 KTX 노선의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또한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앱 '코레일+'도 출시될 예정이다. 2일 서울역 승강장에 KTX와 SRT 중련열차가 정차해있다. /뉴시스

# 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예고 2배 레버리지 배율 조정 가능

##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장 안정화 조치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도 별도의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화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다.

현행법상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것은 수익자총화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조치 기한은 상한으로 두고 배율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윤신의 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은 당초 상품 취지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홍콩에서 배율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제한 또는 정지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불법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작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다만 이는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종목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하면 포괄적 조치권의 당초 취지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메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고 다른 대상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시장이)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지만 긴급조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던 상황을 복기하면서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코로나19 등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전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조치 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도 추진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metro

# 상반기 개인회생 급증... 사상 첫 8만건 돌파

고물가·고환율·증시 등 복합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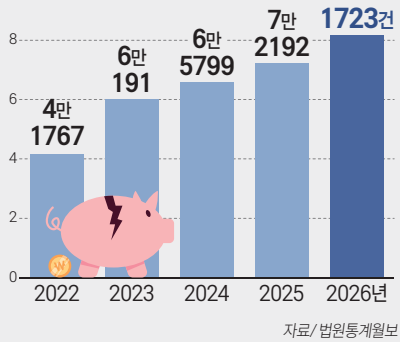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8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급등락을 지속하고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연내 개인회생 신청이 16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은 8만17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만2192건) 대비 13.2% 증가했다.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년 전인 2016년 4만7229건에서 2022년까지 4만 건대에 머물렀다. 이후 2023년 6만 건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7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처음으로 8만 건을 돌파했다.

개인회생 신청 급증 배경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액은 역대 최대인 22조3000억원

## 개인회생 신청건수 추이

상반기 기준, 단위: 건



자료/법원통계월보

을 기록했고, 가계신용 잔액도 20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 상환 여력이 약해진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로 내몰리고 있는 것.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년층과 근로소득자에게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102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

균 채무액은 6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 28.9%, 과소비 26.5%, 가족 지원 19.9%, 사기 피해 18.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기 피해 비중은 전년보다 2.9%포인트(p) 상승했다.

주거비 상승도 채무자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거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반기 개인회생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올해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채무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 “尹 뜰 때 나는 바닥... 7년 만에 엇갈린 운명 뒤집혔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연일 공세... “헌법소원 심판 나설 것”

▲외교부, 中 현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현황 점검  
▲한동훈, 與 보완수사권 폐지에 “원대실에서 토론하라... 끝까지 코미디”



▲한 총리, ‘폭염 2단계 격상’에 범정부 적극 대응 긴급지시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2단계 가동... “국민 피해 최소화”

/사진 뉴시스



# 정의선, 글로벌 현장 종횡무진… 역대최대 판매실적 이어간다

〈현대차그룹 회장〉

정 회장, 중남미·유럽 등 생산 점검  
품질·현지화 등 브랜드 경쟁력 강조  
“고객의 기대 뛰어넘는 완성도 확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남미와 유럽 등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 현장 점검에 나서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와 유럽 시장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거센 곳으로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을 방문해 차체 생산부터 의장 공정까지 양산 전 과정을 점검하고 초기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올 하반기 유럽 시장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3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치백 형태의 B세그먼트 전기차로, 유럽 전동화 시장 공략의 핵심 전략 차종이다.

이달 중순부터 튀르키예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순차 출시되며, 현대차는 내년 연간 4만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B세그먼트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전기차 비중도 빠르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가동을 시작한 튀르키예 공장은 현대차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양산 30주년을 맞는다.

정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과 품질, 판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튀르키예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6만712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만163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배터리시스템조립(BSA) 공장도 방문해 배터리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양산 초기부터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 분야에서도 유럽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중남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지화’ 전략을 강조했다. 당시 정 회장은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와 파워트레인 현지화를 주문하며 “브라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시장의 도약을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브라질 전략 차종인 i20와 S UV 크레타의 생산 품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브라질은 현대차 글로벌 사업의 핵심 시장”이라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는 BYD 등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친환경차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소형 전기차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한편 휘발유-에탄올 혼합 연료 기반 하이브리드(FFV-HEV) 개발과 수소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아도

멕시코 공장의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 6억4900만달러를 투자하며 중남미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누에보레온주에 있는 기아 멕시코 공장 라인을 개조해 소형 전기 SUV ‘EV3’를 다음달 4일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브라질의 산업 환경 변화와 새로운 경쟁 국면을 맞아 여러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다음 단계의 성장과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전자부품 시장 호황… 韓 ‘선도’ 中 ‘추격’

삼성전기·LG이노텍 2분기 호실적  
中, MLCC 생산 확대… 시장 정조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전자부품 호황을 업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AI 서버와 전장용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 기업들은 범용 적층세라믹카패시터(MLCC)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첨단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MLCC와 반도체 기반 등 고부가 전자부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사이 중국 기업들도 범용 시장에서 확보한 자금을 앞세워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제품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이어 전자부품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

중국 대표 MLCC 업체인 삼환그룹은

지난 7월 홍콩 증시 상장으로 71억6000만 홍콩달러(약 1조3000억원)를 조달해 태국과 독일 신공장 건설에 나섰다. 풍화고과도 2020년부터 추진한 75억위안(약 1조6000억원) 규모 설비투자를 마무리하고 월 생산능력을 500억개까지 확대했다. 최근에는 AI 서버용 고부가 MLCC 생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우주항공용 전자부품 업체인 홍다전자 역시 AI 서버와 광통신용 MLCC 라인 증설을 추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범용 MLCC의 절반가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약 25%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범용 시장을 기반으로 확보한 수익을 첨단 부품 투자에 재투자하면서 AI 전자부품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고용량 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하고 있다. LG이노텍도 FC-BGA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베트남 생산거점 확대와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빅테크들의 자체 AI칩 확대도 국내 업체에는 새로운 기회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AI 추론용 자체 칩 개발을 확대하면서 초대면적·고다층 FC-BGA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AI 반도체가 대형화될수록 기판의 기술 난도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사 인증과 생산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MLCC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갈수록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I 서버용 MLCC와 FC-BGA 등 고부가 제품은 고객사 인증과 수율, 생산 기술 등이 중요한 만큼 단기간에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K-방산, 외형성장에도 대형 수주 고전 현지생산·기술협력 등 수출전략 분수령

수주환경 악화… 차별화 전략 중요해져

방위산업계가 실적 및 수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 대형 사업에서는 잇따라 고전하고 있다.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매출은 12조669억원, 영업이익은 1조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41.6%, 영업이익은 36.4% 증가했다. 수주잔고도 확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산 부문의 수주잔고는 핀란드 K9 자주포와 에스토니아 천무 추가 공급 계약 등에 힘입어 약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K2 전자 수출과 철도 부문의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수주잔고 30조원을 넘어선 30조406억원을 기록했다.

실적과 수주잔고가 늘어난 것과 달리 해외 대형 사업의 수주 환경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뿐 아니라 현지 산업 기여도와 기술 협력, 정부 간 외교·안보 관계가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스웨덴 사브에 밀려 탈락한 데 이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약 6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레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백을 제안했지만 독일 라인메탈에 수주를 내줬다.

유럽연합(EU)이 방위비 확대와 함께 역내 생산과 공급망 참여를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무기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자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까지 요구하면서 기존의 완제품 수출 방식만으로는 유럽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공동개발과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남미와 미국으로 수출시장을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은 페루 국영 방산기업과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현지 조립·생산을 염두에 둔 후속 이행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AI도 FA-50 부품 생산 라인 구축을 토대로 페루 차기 전투기 사업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계열 기술을 적용한 차륜형 자주포 K9M H를 앞세워 미 육군의 기동전술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엘라베마주에 통합·시험 시설을 구축하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참여 비중을 높여 현지 조달 요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 “하반기 채무조정 수요 더 늘어날 수 있어”

》1면 ‘상반기 개인회생…’서 계속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경우 자산 가치는 줄어든 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아 채무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도 가계의 상황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비와 주거비 등 필수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가구도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는 증시 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과 고금리 장기화가 맞물릴 경우 기존 취약자주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

로소득자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이자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돌려 막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다중채무자와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사망보험금 미리 써도 월 38만원… 요양비엔 ‘보탬’ 수준

## m-커버스토리

### 노후 돌봄비 해법

초년도 지급액 연평균 455.8만원  
시설 이용료는 월 250만~480만원  
연간 비용의 7.9~15.2%에 그쳐

연금에 보태는 보조 수단으로 한계  
리츠·펀드로 시설 원가 낮추고  
재가서비스·공적 안전망 넓히려

월 250만~480만원의 비용이 드는 보험사 요양시설을 개인의 보험자산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초기 계약의 초년도 지급액은 평균 455만8000원으로, 시설 이용료와 규모를 단순 환산하면 연간 비용의 7.9~15.2% 수준이다. 실제 요양시설 이용자의 총당 실적은 아니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돌봄비를 보태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중간 가격대 시설의 부채를 대신할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조 현금흐름’

요양돌봄비는 보유자산의 총액보다 매달 꺼내 쓸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다. 보험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7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5538만원이지만 금융자산은 9099만원으로 16.4%에 그쳤다. 80대 이상은 자산 3억6229만원 가운데 금융자산이 5001만원, 13.8%였다. 평균치라 자산



Chat GPT에 의해 생성한 보험자산과 돌봄비의 격차, 방문 돌봄의 역할 이미지.

격차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령층 자산이 실물자산에 묶인 구조는 선명하다.

정부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쓰게 하는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5개사에서 시작해 올해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한 19개 생보사로 확대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출시 초기 실적을 보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신청은 1262건, 초년도 지급액은 총 57억 5000만원이었다. 한 계약당 평균은 연 455만8000원이었고 금융위는 이를 월 환산 약 37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 유동화 비율은 89.4%, 지급 기간은 7.8년이었다.

초기 평균 지급액을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보험사 시설 이용료와 같은 연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격차가 선명하다. 시설비는 연 3000만~5760만원인 반면 유동화 초년도 지급액은 455만8000원으로, 규모로는 시설비의 7.9~15.2%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지급재원은 종신보험에 쌓인 해약환급금이며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다. 유동화한 만큼 유족에게 남는 사망보장은 줄어든다.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대상 종신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이용할 수 없다. 보험·연금·주택을 묶어 돌봄 현금흐름을 설계하더라도 자산이 없는 노인까지 포괄할 공적 안전망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요양비 전체를 해결하는 상품이라기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보태는 보조 현금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수령액뿐 아니라 유동화 뒤 남는 사망보험금과 지급

기간을 함께 비교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시설 원가 낮추야

수요자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함께 공급 비용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국에 같은 일당 정액수기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도심 시설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토지·건물 소유에 따른 기회 비용을 반영하고 비급여 수입을 제외한 분석모형에서 서울 시설은 월 800만원 적자, 경남 시설은 월 2000만원 흑자로 추산됐다. 실증분석에서는 지가가 10% 높을수록 장기요양 1·2등급자 대비 잔여 정원 비율이 2.3%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토지·건물의 귀속임대료를 법정보급으로 분리해 대도시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 유인은 커질 수 있지만 부동산 비용을 이용자에게 넘기면 중산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달래마가 남는다. 공급 확대와 가격 접근성을 동시에 잡으려면 다른 비용 절감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다. 운영사가 민간 부지를 장기 임차하거나 건물 전체를 빌리는 마스터리스, 요양시설을 담은 헬스케어 리츠·장기요양 인프라펀드를 허용하면 보험사 자본이 토지와 건물에 묶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사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전문 운영자와 장기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용료 인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건물 비용을 낮

춰준 효과가 중간 가격대 병상 공급과 이용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시설 입소 수요를 낮추고 살던 집에서 지내는 기간을 늘리는 재가돌봄은 돌봄 공급의 다른 축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남 영암의 80대 독거노인 사례를 보면, 골절 수술을 받은 이 노인은 퇴원 뒤 곧바로 장기 입소시설로 가지 않고 ‘중간 집’에서 단기 집중서비스를 받았다. 이후 방문 복약지도·운동과 주거환경 개선을 거쳐 자택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6월 26일까지 4만6215명이 신청했고 3만7304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제공 서비스는 가사·이동 등 일상생활돌봄 43.1%, 건강관리·예방 19.7%,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방문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시설 중심의 보험사 요양시설 공급 확대는 소득 계층 간 돌봄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산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요양 시설 부동산은 리츠나 펀드가 보유하고, 보험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운영자·투자자·보험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면, 보험회사의 자본이 시설 소유에 과도하게 묶이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국산 P-CAB 3총사, 인도·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자큐보, 인도 품목허가 권고 획득  
케이캡, 미국 FDA 허가 절차 진행  
펙수클루, 적응증·제형 확대 추진

국산 신약인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치료제 ‘자큐보’가 14억 인구 대국 인도로 행보를 넓히면서 케이캡, 펙수클루 등 국내 P-CAB 삼총사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온코네티라퓨틱스는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우선 인도 의약품 시장에서 ‘자큐보’(사진) 임상 3상 성공, 상업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자큐보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이다. 앞서 올해 6월 임상 3



상을 마무리하고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한 상황이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올해 안에 인도 최종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인도를 향후 핵심 시장으로 꼽는다. 인도 인구는 14억 명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경제 성장, 생활 변화 등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해외에서 자큐보 상업화에 선제적으로 속도를 내왔다. 자체 판매는 물론, 마일스톤, 로열티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2023년에는 중국 리브존 파마슈티컬과 중화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맺었고 이어 2024년 멕시코 등 남미 19개 국가에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북유럽 5개 국가에선 유통 판매 파트너십을 확보했다.

자큐보의 올해 2분기 국내 처방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 256억원이다. 2024년 10월 출시부터 7개 분기 연속 증가한 기록이다.

국내 P-CAB 시장 선두 주자인 HK이노엔의 ‘케이캡’은 글로벌 영토 확장에서

도 질주하는 모습이다.

특히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동시 승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케이캡은 올해 2분기 완제품 수출로 전년 동기 대비 337% 급증한 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역시 89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연간 수출 매출 127억원의 70%를 달성했다.

이로써 같은 기간, 국내 매출 감소를 방어했다.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가 연동 환급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매출 차감 방식이 적용된 영향이다.

대용제약은 올해 하반기 ‘펙수클루’ 매출 정상화에 나선다. 올해 2분기 펙수클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어 140억원이다. 대용제약은 유통 채널 재정비, 일시적인 재고 소하 등의 여파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용제약은 적응증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역류성 식도염 등 4개 적응증 허가를 완료했고 추가 3개 적응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주사 제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국내 신약개발 관계자는 “주요 제약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외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상업화는 약물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 홈플러스 ‘급여 순연’ 놓고 노사 충돌… 합의 여부 공방

2000억 DIP 투입 앞두고  
사측 “처우 조정에 뜻 모아”  
노조 “임금 순연은 미합의”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임직원 처우 조정에 나섰다 발표했으나, 주요 노동조합이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 긴급운영자금(DIP) 투입을 앞두고 회생의 분수령을 맞

이한 상황에서 노사 간 잡음이 불거진 모양새다.

2일 일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양대 노동조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일반노조) 및 직원 대의기구인 한미음향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동성 부담 완화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밝힌 조정안에 따르면, 9월 지

급 예정인 정기 상여금은 6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되며,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던 최대 12개월치 기본급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환 근무 시 지급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역시 6개월 분할 지급으로 조정됐다. 특히 임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2개월씩 순연 지급하기로 해, 당장 7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자금 경색을 막는다는 계획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처우 조정을 바탕으로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메리츠금융그룹 등으로부터 수혈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상품 공급을 안정을 도모하고, 핵심 점포 67곳을 신선식품 및 자체 브랜드(PB) 중심으로 전환해 재개장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그러나 발표 직후 마트노조홈플러스지

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상여금 분할 지급 등 일부 고통 분담에는 협조하고 있으나, ‘임금 2개월 순연 지급’은 노사 합의 결과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임금 체불 건까지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포장해 알린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측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정성 있는 회생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일방적 회생만 강요할 경우 법적 고소를 포함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7월 급락은 페이크, 9천피 가능” vs “AI 둘러싼 위험 여전”

## 전문가가 본 코스피 전망

코스피, 지난달 34% 폭락 뒤 하루 만에 1001.89 포인트 반등  
外人, 하루 만에 7조 넘게 순매수  
엔비디아 등 빅테크 실적 핵심변수  
AI 투자 지속 여부 등이 반등 결정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발(發)’ 충격파에 급등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마치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 공포와 환희를 오가며 거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각종 악재 속에 내성을 키워나간 8월 국내 증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국내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잭스홀 미팅, 엔비디아 등 실적 발표 등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 AI 공포에서 AI 랠리로…韓 증시 신기록 잇달아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에 장을 마쳤다. 이는 사상 최대 상승률·상승폭이다. 다만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하락률은 34% 수준으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에 해당한다. 1990년 ‘3저 호황’ 버블 붕괴, 1997~1998년 외환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등의 사례보다 큰 폭으로 내렸다. 7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코스피가 17.91% 오른 6595.45에 마감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각각 29.95%, 26.81% 오른 지난 7월 31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은 11.63% 오른 719.76에 마감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원 내린 1424.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보이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8.19% 급등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 기대가 투자심리를 되살리면서 하루 만에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7월 내내 이어졌던 시장 불안이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국내 증시가 AI와 반도체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AI 투자 둔화 우려가 커질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가 급락했고, AI 투자 지속 기대가 살아나자 반도체주가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실제로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했던 7월 2일(-7.89%), 8일(-5.35%), 13일(-8.95%), 16일(-6.37%), 24일(-5.72%), 28일(-10.84%), 29일(-5.98%)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지수 하락률을 웃돌았다. 그리고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한 7월 31일에는 SK하이닉스가 29.95%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6.81% 급등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위 종목들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치솟은 것은 이례적이다.

호주 ANZ은행의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인 쿤 고는 “코스피는 마치 밭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거래되고 있다”며 “주요 국가의 대표 주가지수로서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 8월 변동성과 반등 사이

증권가에선 여전히 국내증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다. 실제 지난달 30일 AI 반도체 주가가 회생하면서 증시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거래소(KRX)에서 7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코스피의 극적 소생에 한동안 30조원대 인콰이었던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49조원 가까이 급등했다.

국내 증시 가장 큰 베팅목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얻는 소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났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5.6% 증가했다. 2분기 GDI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11.9%포인트 높게 나타나 1분기의 ‘역대 최대 격차’를 경신했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실질 구매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경제 성장 구조도 반도체 중심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0%를 밑돌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51%까지 확대됐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8%로 높아졌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 지수는 5150포인트를 최악의 마지노선으로 두고 이후 잠복해 있는 불확실성의 경로를 확인하며 635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 코스피 6000선 내의 구간에선 투매보단 보유를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증시 이탈보다 분할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가 기존 페이스를 되찾을 경우, 9300선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빠른 시간 내에 코스피가 5700~5800선에 안착할 경우, 7월 말 급락 국면은 ‘페이크’, 속임형 패턴으로 빠르게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 경우 1차적으로 선행 주가수익비율(PE) 7배 수준인 8200선, 이후에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4.74배로, 2000년 이후 최저치인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반등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예정된 엔비디아, 샌디스크, AMD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꼽았다. AI 투자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지속 여부가 국내 증시 회복 강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전망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MBMG패밀리오피스그룹 공동창업자인 폴 캄블스는 “앞으로도 이런 날(지난 31일 급등)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과 완전히 괴리돼 있다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가 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승이 하루짜리 안도 랠리에 그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AI 열풍을 둘러싼 위험이 사라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폭등에도 레버리지 거래 ‘뚝’ 규제 이후 달라진 투자흐름

16개 종목 거래대금 12.4조 → 3조  
SK하이닉스 상한가 등에도 거래 감소

미국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0~30% 가까이 반등했지만, 정작 이들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적용된 지난달 3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ETF와 상장지수증권(ETN)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거래일 1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데이터는 레버리지상품 거래가 줄어든 데 그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 밀려났고, 지금은 지수형 인버스 등 다른 ETF로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단순히 거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하루 만에 3조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5361억원에서 2228억원으로,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조2390억원에서 4820억원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장 분위기와 거래 흐름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26.81%, SK하이닉스는 상한가까지 오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상 기초자산 변동성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상품 거래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거래가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기본예탁금 강화와 결제제도 변경이 투자 행태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매도대금은 실제 결제일(T+2) 이후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바뀌 당일 매도대금을 활용한 반복 매매를 어렵게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 韓 2분기 성장률 OECD 중간… 0.6% 오르며 성장세 둔화

1분기 2위 → 2분기 8위로  
추가 20개국 취합 대기 중  
최종 15~20위 사이 예상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국제비교에서 올해 2분기엔 중위권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1분기에 최상위권이었으나 기저효과 영향에 받았다. 1일(한국시간) 기준 중간순위 8위에 올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직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0.6%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1분기의 1.8%와 비교하면 성장세는 둔화했다. 단, 전 분기 큰 폭의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큰 탓에 경기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국은 이날까지 OECD 회원국 18곳 가운데 8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나머지 20개국이 추가되면 최종 15~20위 사이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곳 중 13곳의 GDP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2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우리나라는 앞선 1분기의 경우,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다 나중에 집계된 아이슬란드(3.7%)에 뒤져 최종 2위의 성적을 냈다.

2분기 비교에서 현재 1위는 아일랜드



지난 4월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뉴시스

다. 분기 성장률이 무려 3.9%에 달했다. 1분기의 기록적인 역성장(-7.0%)에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리투아니아(1.7%)와 멕시코(1.5%), 스웨덴(1.4%)이 1%대를 기록하며 각각 2~4위에 자리했다. 이어 핀란드(0.9%), 포르투갈(0.8%), 스페인(0.7%) 순이다.

그 뒤로 한국(0.6%)이 8위, 미국-에스토니아-체코-헝가리가 0.4%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간만에 2개 분기 연속으로 경제대국 미국을 앞질렀다.

이 밖에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모두 0.2%의 성장세를 보였다. 벨기에·오스

트리아(0.0%)는 전 분기 대비 제자리걸음했다.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 0.9%로 한국에 앞섰다. 일본(1분기 0.5%)의 2분기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의 경우,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0.4%, 유럽연합(EU) 평균은 0.0%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3.0%로 제시했다. 지난 1월 당시의 전망치인 2.0%에 비해 무려 1.0%포인트(p)나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오늘도 나와 의 약속을 지켰다

마지막 터치패드에 손이 닿는 순간  
관중의 함성 속에  
어제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빨라지겠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결과가 어떻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승리입니다

앞으로도 어제의 나를 넘어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국민과 함께 KB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육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 KB금융그룹



# 패스트트랙 단축·코스피 국조… 여야 ‘8월 힘겨루기’ 예고

입법 주도권 싸움 등 정국 긴장  
민주, 연말까지 민생 입법 등 속도  
국힘, ‘연쇄 국회법 개정’ 저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를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빠른 입법을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라고 제안해 이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일부터 임시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8월 초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데다 민주당이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이라 본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본회의가 이르면 13일쯤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나온다.

8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

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해갈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낮추고, 필리버스터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시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강제 교체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야당 몫 상임위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연이은 국회법 개정은 연말까지 민생 입법,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그간 난항이 있었으므로, 국정과제 수행에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개정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연쇄 국회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특별검사)법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일단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에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 국민추천위 구성부터 운영까지 이견이 예상돼서다.

특검 수사 범위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조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여투쟁의 한 방식으로 최근 주목도가 높은 민생 이슈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민주당과 낯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미국서 AI, 남미서 자원…李 순방 마무리

5개국 ‘경제안보 외교’ 성과  
‘美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남미서 공급망 안정·자원 확보 집중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을 거쳐 자국을 한 바퀴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국 순방이 3일 끝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장 기간 이뤄졌다.

이번 순방의 키워드는 ‘경제안보’였다. 첫 순방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남미로 넘어가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 확장, 그리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재개 등 통상 분야의 성

과가 있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글로벌 혁신과 투자의 본고장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만나 ‘AI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이 만난 기업들은 엔비디아, 오픈AI, 엔트로픽,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와 한국의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AI 산업에 대한 협력 비전을 공고히 하고자 ‘샌프란시스

코 AI 선언’을 발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다.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실리콘밸리 및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를 선도하는 벤처캐피털(VC) 6개사와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집권 2년치를 맞아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제 무대에서 AI 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진 남미 3개국 순방 성과는 핵심광물 협력, 공급망, 에너지, 무역협정 등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3개국 정상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을 관한 약속을 구체화한 정부 간 문서 체결을 이뤄냈다.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데, 보호주의 무역 기조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변화에 나선 셈이다. 브라질은 희토류, 칠레는 리튬과 구리, 아르헨티나는 리튬이 풍부하다.

원유 수입원의 지변을 넓히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22년 만의 방문을 계기로 한-아르헨티나 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아르헨티나산(産) 원유 수입의 안정적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정상 회담을 계기로 브라질과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아르헨티나와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에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2억8000만 인구의 거대시장에 우리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또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현대화 논의에 합의하며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고, 브라질과는 ‘경제·통상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식 방문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모두 양자회담을 가지며, G20 의장국 활동을 위한 지지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예진 기자

## 국힘, 형소법 개정안 반발…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오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 규탄 및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방침이다. 핵심 대응 기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대체 법안 마련 ▲법적 대응 ▲대여 여론전 강화 등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전

달하고, 통과된다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당 차원으로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은 수석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고위 관계자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고,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생을 돌본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보완수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단순한 검찰 개혁이 아닌 ‘입법 폭거’로 규정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한 모습. /뉴시스

사권의 일부 필요성 언급 ▲보완수사권 존속 여론 우세 ▲공소 기각 사유 신설 논란 불식 가능성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 교수는 “(국무회의가) 8월 17일(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이전에 열리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이후라면 행사할 수 있다”며 “그것이(국무회의 개최 시점) 중요하다고 본

다”고 보았다.

다만 그는 최근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행보가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중도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없으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 AX강국 대한민국

바다 속 해저 케이블부터  
하늘 밖 우주 위성통신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온 KT

이제는 AX 인프라 위에  
최적의 AX 서비스까지 더해  
국가·산업·일상의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 저축은행·상호금융, 연 4% 이상 고금리 특판상품 쏟아져

금리 상승기 수신 경쟁력 확보 나서  
10개월 만기 4.5% 특판상품 등 출시  
해지 금리 등 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붙고 있다. 여윳돈을 굴릴 만한 곳을 찾고 있다면 제2금융권의 특판 상품 금리와 조건 등을 눈여겨 볼 만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연 최고 4.1%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한다. 지점에서 상품을 가입할 경우 1년 만기 기준 4.0%, 인터넷 뱅킹·사이드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4.1%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은 3000억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협도 고금리 특판을 실시한다. 여수제일신협은 지난 30일부터 12개월 기준 한아름정기예금 상품을 연 최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앞에 예금·적금 금리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4.3%에 제공한다. 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이번 특판 상품은 신협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온뱅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스토어

에서 신협 은행 앱을 설치 후 가입하면 된다. 단, 특판 가입 하루 전에는 여수제일신협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단기간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한다면 새마을금고도 10개월 만기 고금리 특

판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서울 이태원1동 새마을금고는 10개월 만기 4.5% 금리의 특판을 출시했다. 1000만원을 10개월 예치하면 세전 약 37만 5000원(세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특판 상품들은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높은 금리 숫자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중도 해지 금리, 가입 가능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처럼 2금융권에서 특판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배경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신 경쟁력 확보 전략이 꼽힌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연달아 올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면 저축은행 역시 수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고객이 그쪽으로 몰

리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 2금융권은 고금리 특판을 내놓거나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면서 머니브 자금을 다시 예·적금으로 흡수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98조9787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지난 4월 100조6607억원으로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5월에는 100조4487억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신 잔액은 각각 141조2654억원, 526조6597억원이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2조7532억원(1.91%), 4조5515억원(0.86%)씩 줄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 손보사, 의료현장으로 간다… 고객 건강위험 사전 예방

삼성화재 질환 예방·관리모델 개발  
현대해상 요양병원 등 협업 확대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 시계가 보험금 청구 이후에서 질병과 부당청구가 발생하기 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병원과 만성질환을 미리 예측·관리하는 모델을 만들고, 현대해상은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비 '페이백' 등 부당행위를 막는 자율준수 체계 구축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라이프케어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3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를 공동 설립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모델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양측은 강북삼성병원이 40여년간 축적한 건강검진 임상 데이터와 장기간 추적 연구 역량에 삼성화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경험을 결합한다. 고객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분석해 만성질환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고, 위험 수준에 맞춰 관리하는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도 추진한다.

삼성화재가 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강북삼성병원의 자문·협력으로 기업 임직원용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애니핏프로'를 내놔다. 당시 앱과 측정기기를 통해 혈압·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공동 연구와 실증을 통해 예방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의 경제적 보장을 넘어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도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병원 협업은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 6개 요양병원, 1개 한방병원과 자율준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허위·과잉·형식적 입원과 허위 진료기록 작성, 본인부담금 면제·환인이나 진료비 환급,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을 금지하고 정기 교육과 점검, 정보 공유를 이어가는 내용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금지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린 뒤 지난달 의료기관 18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위험관리의 무대를 병원으로 넓히는 배경에는 불어나는 의료비와 보험금이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 금감원, '대포폰 제로' 가동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대포폰 차단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일 불법사금융 대포폰 발신을 원천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S)'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AWS는 무제한 전화 발신을 이용한 착신 무력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홈페이지에 불법대부·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해당 번호가 이용 중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대상 요건이 확인되면 AWCS를 즉각 가동한다.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과기부는 검토를 거쳐 해당 전화번호를 영구 이용 중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선 기자

## NH농협금융, '지역밀착금융' 본격 추진

이찬우 회장, 생산적·포용금융 점검

NH농협금융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제3차 생산적·포용금융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찬우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담당 임원과 부사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NH농협금융은 상반기 생산적금융 11조9000억원과 포용금융 2조1000억원을 공급해 내부 추진관리 기준 대비 70%를 웃도는 진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그룹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밀착금융 프로젝트'를 NH생산적금융 4호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4호 사업에서는 지역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융자와 포용금융을 그룹 차원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생산적금융 분야에서는 하반기 IMA 발행과 벤처캐피탈(VC)·농식품 투자펀드 확대를 추진한다. 전북 'NH금융허브'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늘리고, 첨단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전략산업과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NH상생성장펀드'의 후속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후속 펀드는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NH미소금융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한 마을기업 지원, 상생보험 및 취약계층 보험지원 참여, 연체채무자의 재기 지원도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김주형 기자

## 하나금융그룹, 청라 이전 통합 캠페인 전개

연 7% 금리우대쿠폰 등 혜택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헤드쿼터(HQ)의 인천 청라 이전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한 전 관계사 통합 캠페인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관계사가 참여하는 통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관계사별 금융상품과 이벤트,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해 인천 지역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인천과 하나되는 축제'를 통해 인천 시민과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5만매 한정으로 최고 연 7%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맘 적금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하고, 적금 가입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인천출발 크루즈 여행상품권과 인천지역 호텔 숙박·다이닝 이용권, 인천e음카드 등을 증정

한다.

인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그룹 HQ 홍보영상을 부탁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팀에는 팀별 활동지원금 50만원과 활동확인서를 제공하며, 수상팀에는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나증권은 국내 주식을 1주 이상 매수한 고객 중 선착순 7만명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팡 없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은 항공상품권 100만원과 국내주식 매수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100% 당첨 룰렛에 응모할 수 있다.

하나카드와 하나저축은행도 인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마련했다. 하나카드의 인천 지역 가맹점에서 합산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가운데 5000명을 추첨해 최대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저축은행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최고 연 8%의 정기적금 상품을 5000좌 한정 판매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분양 캘린더

### 4개 단지 3034가구 분양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0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87가구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 교동 리세스302,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비아스테리움거제', 부산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더원7차'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부천시 송내동 '중동역다채로움더원', 세종시 다솜동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자이제니크' 등 3곳이 문을 연다.

이외에 부성종합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중동역다채로움더원'을 공급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中, LNG선 수주 첫 韓 추월… 증설 도크·저가로 발주 흡수

중국 34척 수주, 한국 32척 추월  
韓 조선소 2~3년치 일감에 도크 포화  
中 생산능력 확대로 추가 주문 흡수  
중동·유럽 등 해외 선사 발주 확대  
건조 경험 축적 땀 기술 격차 우려

중국 조선소가 올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수주량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다. 이미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들의 가용 도크가 대부분 채워진 가운데, 생산능력을 확대한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추가 발주를 흡수한 결과다. 중국이 LNG선 건조 경험을 빠르게 축적할 경우 중장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선박 중개업체 반케로 코스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중국 조선소의 LNG운반선 수주량은 34척으로 한국(32척)을 제쳤다. 양국의 LNG선 수주 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져 왔다. 한국은 지난 2022년 113척을 수주하며 중국(43척)을 크게 앞섰지만, 2023년 55척 대 27척, 2024년 56척 대 46척으로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39척, 중국이 12척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LNG운반선.

/한화오션

발주처도 기존 중국 선사 중심에서 아랍에미리트(ADNOC&S), 싱가포르(EP), 그리스(TMS카디프가스), 말레이시아(MISC) 등 중동·유럽·동남아 선사로 다변화되는 추세다. 수주는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과 후둥중화조선이 주도했다.

중국의 수주 확대 배경으로는 한국 조선소의 가용 생산능력(도크 슬롯) 부족이 첫손에 꼽힌다. 한국 조선소는 부지가 제한적인 데다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자

동차운반선 등 타 선종 주문도 몰려 추가 확장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2~3년 치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약 80척, 2027년 약 80척, 2028년 최소 60척의 LNG선 인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iM증권은 지난 1월 “한국 조선 4사의 연간 LNG선 인도 능력은 약 70~75척 수준이나, 향후 최소 2년간 이를 웃도는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국의 가스 수요 증가와 자국 선사들

의 발주 확대도 수주 증가를 뒷받침했다. 반케로 코스타는 올해 중국 조선소가 수주한 LNG선의 최소 4분의 1이 자국 선사 물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LNG선 발주량에서 중국 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한국 3%)다. 여기에 중국 조선사들이 도크 증설로 확보한 생산능력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점도 해외 선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제한된 도크를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기 위해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HSG성동조선에 유조선 2척의 전선 건조를 맡겼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역 중소 조선소와 블록·모듈 제작 및 MRO(정비·유지보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조선연구위원은 “중국의 건조 물량 확대는 기술과 생산 경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LNG선은 한국의 핵심 선종인 만큼 해외 위탁생산보다 국내 건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hahledhale@metroseoul.co.kr



metro

고려아연

## ‘도가니’ 정신 앞세워 핵심광물 도약 선언

“뜨거운도가니와 풀무속에서 함께 단련하며 새 가치를 창출합니다.”(최윤범 회장)

고려아연이 창립 52주년을 맞아 글로벌 핵심광물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과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은 7월 31일 진행된 창립행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과 임직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올해 창립기념사의 핵심 키워드로 ‘도가니(Crucible)’를 제시했다.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명칭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금속을 녹여 정련하는 도가니처럼 뜨거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제주 히트펌프 보급 1위… 난방 전기화 시동

상반기 1042가구 중 450가구 설치  
에너지 비용 최대 60% 절감  
제주 시작으로 국내 시장 확대

LG전자가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1위 사업자로서 공식 현판식을 개최했다.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난방 전기화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 7월 31일 제주시 구름동산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히트펌프 보급사업 공식 1호 현판식’을 진행했다.

1호 설치 현장은 5인 가구가 거주하는 55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이번 사업의 1위 사업자인 LG전자의 고효율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인 ‘LG 씨마브이



LG전자는 지난 7월 31일 제주시에서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공식 1호 현판식’을 진행했다.

/LG전자

히트펌프 보일러’가 설치됐다.

LG전자는 정부가 난방 전기화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첫 무대인 제주에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및 설치·사후관리 인프라,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 등을 인정받아 1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상반기 제주도 보급수량 1042가구 중 가장 많은 450

가구의 설치를 전담하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히트펌프 사업을 지속해왔다. 2011년부터는 국내에서 시스템 보일러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내 제조사 중 유일하게 주거용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공급하며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사업역량을 축적해 왔다.

제주 보급사업 현장에 설치되는 LG 씨마브이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의 고효율·고성능 시스템으로, 투입 전력 대비 약 4~5배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대비 약 40~60%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해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실외기와 주요 구성 요소가 일체

화된 구조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 없고, 기존 주택의 온수 배관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시공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해 환경 부담을 줄였으며, LG 씽큐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으로 사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공기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과 난방 전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히트펌프 시장도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탈탄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일렉트릭 북미 생산법인의 1000번째 초고압변압기 생산 기념행사에서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왼쪽)과 바버라 햄튼 조지아 트랜스미션 대표(오른쪽)가 기념패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 배터리 3사, ESS·세액공제 힘입어 동반 흑자… 하반기 수익성 ‘관전’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실적 반등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ESS 판매 증가  
가격 경쟁 심화에 수익성 확보 과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지속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판매 확대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실적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다만 완성차 업체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ESS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배터리 3사는 2분기에 나란히 영업흑자를 기록했

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와 원통형 배터리 출하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했고 삼성SDI는 고효율 배터리와 유럽형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증가로 7분기 만에 영업흑자를 냈다. SK온도 아시아 지역 판매 확대와 고객 보상금 수령, AMPC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매출 7조 5602억원과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2078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상반기 ESS 매출은 생산설비 전환과 출하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4.6배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후반까지 높아졌으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ESS 신규 수주는 3조원

을 넘어섰다.

삼성SDI는 2분기 매출 3조 7688억원과 영업이익 20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5% 증가했으며 영업손익은 지난해 2분기 3978억원과 올해 1분기 1556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AMPC 1077억원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961억원을 기록했다.

SK온은 2분기 영업이익 8218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영업손익이 1조 1710억원 개선되며 흑자로 전환했다. 아시아 지역 판매량 증가와 고객 보상금 수령,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AMPC 확대 등이 흑자 전환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배터리 3사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도 수요가 늘고 있는 ESS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미 생산 기반과 현지 공급망을 활용해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능력 확충과 수주 확대에 나선다.

다만 ESS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잇따라 진입하면서 가격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포드는 SK온과 운영하던 미국 캔터키 합작공장을 ESS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프랑스전력공사(EDF)와 2028년부터 5년간 최대 20GWh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M도 미국 스타트업 피크에너지와 협력해 ESS 시장에 진출했다. 테슬라는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경쟁 심화로 산업용 ESS의 평균 판매가격(ASP)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관희 기자 wkh@

HD현대일렉트릭

## 美 변압기 1000대 생산 북미 시장 2년 연속 1위

HD현대일렉트릭이 2011년 미국 앨라배마주에 북미 생산법인을 설립한 이후 15년 만에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 1000대를 달성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온 성과는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내년 4월에는 제2공장 증설을 완료해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급증하는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북미 생산법인에서 1000번째 변압기 생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바버라 햄튼 조지아 트랜스미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통신3사, 멤버십·요금제 혜택 확대 고물가 시대 고객 체감 할인을 ‘쑥’

KT, 이달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  
요금 요금제 가입 시 한달 비용 환급  
SKT ‘글로벌여행 바캉스 프로모션’  
포인트 활용해 요금 납부 할인도  
에어 요금제, 월정액 70%까지 확대  
LG U+ ‘유플투빨’, 총 52종 할인

이동통신 3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고객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제 신규 가입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8월부터 멤버십·요금제·로밍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고객 혜택을 일제히 확대한다.

이는 지난 2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간담회에서 마련한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통신 3사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발판 삼아 인공지능(AI)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지속 투자하는 한편 고물가에 따른 고객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통신 3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존 멤버십 혜택을 여행·레저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KT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를 열고 공항 라운지 이용 할인과 함께 놀이공원, 렌터카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SK텔레콤은 이달 방콕, 나트랑, 괌 등 여행지에서 교통·관광시설 등 13종 혜택



이동통신 3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고객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썬GPT로 생성한 이미지

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여행 바캉스 프로모션’을 연다.

LG유플러스는 공식 멤버십 할인 프로모션 ‘유플투빨’을 통해 외식, 식음료부터 문화, 레저까지 총 52종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특히 AI 통화 비서 ‘익시오’를 활용해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와이파이 환경에서 연결 가능한 무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KT와 SK텔레콤은 통신비 비용 절감을 위한 요금제 신규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KT는 ‘요금 요금제 61·69’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 치 비용을 전액 환급한다. 요금 요금제는 5G를 초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몰 전용 요금제다. 또한 만 34세 이하 고객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2배 확대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안심 박스가 무료다. 군인 전용 요금 할인도 있다.

SK텔레콤은 요금 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구성했다. 자급제 고객 전용 ‘에어 요금제’에 신규 가입하면 제공하는 포인트 사용 혜택을 최대 12개월 간 월정액의 70%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무제한인 ‘에어 X’ 요금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포인트 전부를 사용해 통신요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향후 통신업계의 마케팅 경쟁은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요금 고객 체감 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3사와 5G·LTE 망 구분을 없애고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QoS)을 전 요금제에 적용한 통합요금제를 최근 실시했다. 오는 10월에는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엔씨, ‘아이온2’ 앞세워 中 시장 출사표

‘차이나조이2026’서 현지 첫 공개  
시연·영상공개 등 中 겨냥 마케팅  
리니지 의존 낮추고 성장장축 확보

엔씨가 차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를 앞세워 세계 최대 게임 시장에서 중국 공략에 본격 나섰다.

리니지 중심의 매출 구조를 넘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성패가 향후 글로벌 사업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게임 전시회 ‘차이나조이2026’에서 ‘아이온2’를 현지 이용자들에게 처음 공개했다.

행사 기간 시연과 영상 공개, 개발진 소개 등을 통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에 나서며 정식 서비스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특히 김택진 엔씨 대표도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오래 기억될 게임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발해왔다”며 “아이온2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MMORPG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온2는 2008년 출시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아이온’의 정식 후속작이다. 천족과 마족의 대립이라는 원작



김택진 엔씨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성취게임즈와의 퍼블리싱 협력 체결식에 참석했다.

/엔씨

세계관을 계승하면서도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그래픽과 심리스 오픈월드, 자유 비행 시스템, 논타깃 전투 등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과금 중심의 성장 구조보다 플레이 경험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공개를 단순한 신작 홍보 이상의 의미로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지만 관호 규제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반면 MMORPG 장르에 대한 이용자층도 두터워 흥행에 성공할 경우 실적

기여도가 매우 큰 지역으로 꼽힌다.

엔씨 역시 최근 리니지 시리즈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IP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이온2를 비롯해 신디시티, 브레이커스 등 신작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이온2가 엔씨의 체질 개선을 상징하는 핵심 타이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출시 이후 이용자 반응뿐 아니라 중국 서비스 일정과 현지 흥행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엔씨의 글로벌 매출 비중 확대는 물론 기업가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이온은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IP인 만큼 후속작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며 “결국 원작의 감성을 얼마나 현대적인 게임성과 결합해 현지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흥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는 향후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콘텐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아이온2를 글로벌 대표 MMORPG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게임 개발 기술과 라이브 서비스 운영 역량을 접목해 장기 흥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스튜디오N, 청룡시리즈어워즈 4관왕

취사병 전설이 되다, 유미의 세포들 등 웹툰·웹소설 IP 콘텐츠 경쟁력 입증

네이버웹툰의 영상제작 자회사 스튜디오N이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웹툰·웹소설 지식재산권(IP) 기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입증했다.

2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스튜디오N이 제작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 시즌3’와 함께 최우수작품상 후보에 올라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튜디오N은 지난해 ‘중증외상센터’로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제작 작품이 최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우들의 수상도 이어졌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출연한 윤경호는 남우조연상을, ‘유미의 세포들 시즌3’의 김재원은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은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OST ‘슬픈 짝꿍’으로 OST 인기상을 수상했다. ‘은종과 상연’, ‘유미의 세포들 시즌3’ 등에 출연한 김고은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스튜디오N이 올해 선보

인 작품들이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방송과 OTT에서의 흥행에 이어 시상식에서도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즌제 콘텐츠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원작 팬덤과 드라마 시청층을 연결하며 안정적인 흥행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까지 흥행하면서 웹툰 IP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네이버웹툰이 설립한 스튜디오N은 웹툰과 영상 콘텐츠를 연결하는 IP 브릿지 역할을 맡고 있다. ‘스위트홈’, ‘사냥개들’, ‘중증외상센터’, ‘비질란테’, ‘재혼 황후’, ‘여신강림’, ‘정년이’, 영화 ‘썸비탈’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며 웹툰·웹소설 IP의 영상화를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애니메이션 ‘연의 편지’는 올해 미국 하비상(The Harvey Awards) 최고 각색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오는 9월 일본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빛나 기자

## SKT, ‘가민·샤츠’ 제휴로 러너 고객 공략

GPS 스마트워치 포러너 2종 선보

SK텔레콤이 러너 고객 공략에 나서기 위해 글로벌 GPS 스마트기기 브랜드 가민과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샤츠 등 스마트기기 신규 제휴 상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가민은 러닝 GPS 스마트워치 포러너 70·265 등 2종을 선보인다. 특히 포러너 70 제품은 러닝을 처음 시작하거나 일상적인 운동 기록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이 가민과 독점 제휴해 이동 통신사 중 유일하게 선보이는 제품이다. 포러너 265는 전문적인 러닝 데이터와 훈련 기능을 활용하기 좋다.

샤츠에서는 골전도 이어폰 ‘오픈런 프로2’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반 이어폰에 비해 저음 표현력이 아쉬운 점을 보완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트 기기 할부금 할인은 베스트 맥스·프로·109, 다이렉트5G 76 요금제를 사



SK텔레콤 모델들이 신규 제휴 스마트기기 상품 가민·샤츠 제품들을 착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용하는 고객 대상이다.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대상 요금제 유지 시 매달 지출되는 기기값을 최대 2만 4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러닝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SK텔레콤은 내달 19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6 무한도전 런 인 경주’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은 대회 참가권을 응모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구입해 할부금 할인을 활용하는 고객에는 추가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 KT, 공식 온라인몰 ‘KT다이렉트샵’ 새단장

기존 ‘KT샵’서 명칭 변경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 명칭을 ‘KT다이렉트샵’으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KT다이렉트샵은 KT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이다.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 통신 상품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KT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직영 온라인몰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전용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7% 다이렉트 요금 할인과 인터넷·TV 동시 가입 혜택, 결제 및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기념해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 고객을 위한 전용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KT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플립8을 번호이동으로 사전예약하고 개통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무선 충전기를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8명에게는 순금 코인도 제공한다. 사전예약은 3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개통은 4일부터다. /조민선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내년 2월 STO 시대 개막… 증권사들, 주도권 잡기 총력전

미래에셋, 코빗 지분 97.15% 확보  
한투, 코인원 지분 확보하고 협업  
한화투자·삼성, 두나무 투자 확대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이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과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제도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산 사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 확보는 물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래에셋그룹이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 지분을 97.15%까지 확보하며 사실상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거래소 명칭도 디지털 엑스(Digital X)로 변경해 그룹의 디지털금융 플



ChatGPT로 생성한 '증권사들이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와 토큰증권(STO) 사업 확대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 관련 이미지.

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 관리(WM), 인공지능(AI),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연계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직접 거래소를 품기보다 코인원 지분 약 20%를 확보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사의 상품

설계 역량을 결합해 STO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6월 약 5978억원을 투입해 두나무 지분 3.90%를 추가 취득하면서 보유 지분을 5.94%에서 9.84%로 확대했다. 더불어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도 지난 5월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주식 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지분 2%, 삼성SDS와 삼성카드는 각각 1%를 확보했다.

거래소 지분 투자 외에도 디지털자산 사업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디지털자산 테스트포스(TFT)를 신설해 사업 모델 발굴과 기술 검증에 착수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투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TFT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거래소 투자에만 머물지 않고 STO 시장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만큼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주요 증권사들은 STO 시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B증권은 거래

소 지분 투자보다는 발행과 유통, 결제, 보관을 아우르는 STO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큰증권 시스템을 고도화한 'KBSTOV2'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화를 준비하며 제도 시행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축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부터 청산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DB증권은 지방자치단체 및 블록체인 기업과 협력해 실물연계자산 기반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TO 제도 시행 이후에는 단순히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넘어 어떤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유통·결제 인프라를 갖추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갖춰진 이후에 후발주자가 시장을 따라잡기 쉽지 않은 만큼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급락장 직격탄… 상장주 70%가 마이너스

7월 코스피 22.2%, 코스닥 21.4% ↓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 30곳 달해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상장 종목 10개 중 7개 플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지난 6월 30일 대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1859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종목(2645개)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 566개로, 코스피 전체 종목(917개)의 62%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 전체 종목(1728개)의 75%에 해당하는 1293개 종목이 내렸다.

하락 종목 비율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높았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황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증동 긴장 등

에 대거 휘청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01% 급등하며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고점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화된 측면도 있다.

지난달 한달간 코스피는 22.2% 급락했으며, 코스닥지수도 21.4% 내렸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휘청였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지난 28일 코스피는 10.84% 급락한 데 이어 29일과 30일 각각 5.98%, 1.23% 내린 바 있다. 이후 31일 18%가량 급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 6월 말 종가(8,476.48) 대비로는 1,881포인트 넘게 낮은 상태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은 코오롱티슈진으로 86% 급락했다. 지난 6월 말 9만3600원이던 주가는 지난달 말 1만3000원으로 폭락했다.

뒤이어 더테크놀로지(-76%), 코오롱생명과학(-67%), 콘텐트리중앙(-67%), 스트라드비전(-65%), 저스텍(-64%) 등 순

으로 하락률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지앤이헬스케어로 222% 폭등했다.

이어 아이씨에이치(87%), 벡트(86%), 에넥스(85%), 조이웍스앤코(75%) 등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 상장사도 지난 한달 때 일 한국폴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무려 30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8거래일간 19곳(줄스, 앤씨엔, 예선테크, 바이오인프라, 휴팩스홀딩스, 삼보산업, 씨엑스아이, 형지I&C, 바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조이웍스앤코, 유진테크놀로지, 파이온엑스, 핑거스토리, 나노씨엠에스, 바른손이앤에이, 답커머스, 썸에이지, 유디애텍)의 공시가 한꺼번에 몰렸다.

/신하은 기자

## 서학개미, 美 증시 하락장에 50조 손실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 하락 영향 커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두달간 5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레버리지 상품에도 많은 금액을 배팅하면서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7월 1~31일(조회일 기준) 서학 개미의 미 주식 순매수는 46억 6862만 달러(6조7428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증시가 6월부터 약세장이 지속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국장을 떠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6억3296만 달러)과 7월(46억6862만 달러) 두 달간 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은 53억 달러(7조6547억원), 그러나 평균손실은 약 50조원에 달했다.

지난 5월 말 2041억 달러였던 서학 개미의 미 주식 보관액(평균액)은 지난달 30일에는 1704억 달러로, 337억 달러(48조 6729억원) 증발했다. 손실액은 5월 말 평균액의 약 16.5%에 달한다.

이 기간 미 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7580.06 → 7437.63)과 나스닥 지수(2만6972.62 → 2만5122.18) 하락률(1.88% 및 6.8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준 서학 개미들의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179억 달러) 주가가 같은 기간 29.1%(435.79달러 → 308.85달러) 하락한 영향이 컸다.

서학 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엔비디아(160억 달러) 주가도 같은 기간 7.6%(211.14달러 → 195.04달러) 내렸다.

특히, 국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미 증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도 큰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6~7월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S ETF)로, 37억7486만 달러(5조4520억원)어치 사들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한투 MTS, 고객 맞춤형 투자 플랫폼 진화

시세부터 ISA 관리까지 통합·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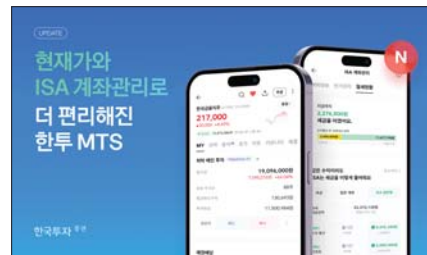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국투자' 앱의 국내주식·상장지수펀드(ETF) 현재가 화면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리 기능을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의 보유·거래 정보와 시세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투자 정보 탐색과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리서치 콘텐츠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 전달 방식도 다양화했다.

국내주식과 국내ETF 현재가 화면에는 'MY' 탭과 '요약' 탭을 새롭게 마련했다. 'MY' 탭에서는 해당 종목의 매수 평균단가와 매매 이력, 평가손익 등 고객의 투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잔고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현재 시세와 본인의 투자 내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요약' 탭에는 당일 시세 흐름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등 종목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모았다. 해당 종목을 편입한 ETF 목록도 함께 제공해 개별 종목에서 관련 ETF로 투자 정보를 확장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ETF 현재가 화면에서는 실시간 수익률과 함께 과거 분배 이력을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분배금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ETF의 가격 흐름과 분배 관련



한국투자증권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개형 ISA 계좌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고객은 모바일 앱에서 가입 정보와 서민형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만기 설정과 연금계좌 전환 신청, 누적 절세 현황 조회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경로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계좌 개설 이후의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개편 이후 이용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ISA 계좌 관리 화면 개편 이후 해당 기능의 월간 이용 고객 수는 개편 전보다 60% 늘었다.

리서치 콘텐츠의 접근성도 확대했다. 지난달 선보인 '읽어주는 글로벌 리서치'는 한국투자증권이 독점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리서치 자료를 음성합성 기술로 재생해 주는 서비스다. 이동 중이거나 화면을 장시간 확인하기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리서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 예탁결제원, 젊은 목소리 경영에 담는다

제6기 주니어보드 출범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 노사가 입사 7년차 이하 직원 22명으로 구성된 제6기 '주니어보드'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원은 2021년 노사가 주요 현안에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주니어보드를 발족한 이래 노사 공동 워크숍과 유관

기관 견학 등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동우 노동조합위원장은 "주니어보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젊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수도권매립지공사, 감축기술 전파 라오스서 기후·물 협력 기반 다져

비엔티안 국제 라운드테이블 참석  
아시아 각국 관계자 100여명 참여  
말레이시아 등 7개국서 사업 진행  
물협의회·농어촌공사와 3자 협약  
공동연구·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라오스 현지지를 찾아, 공사가 추진 중인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소개하고 보유 기술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아시아 지역 관계자들과도 만나 기후·물 분야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기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국회의 원물협의회(AAWC) 제3차 기후·물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및 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기후·물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라오스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에 해외사업 분야 우수사례 발표기관으로 초청받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소개했다. 그간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쌓은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과 매립가스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말레이시아와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파나마, 가나,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실시 중이다. 폐기물과 바이오가스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월2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기후·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발표에서는 공사가 보유한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과 국내의 사업을 통해 쌓은 온실가스 감축 경험 등을 소개했다. 또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행사에서는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기후·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의 기후·물 문제해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이 협력해 나갈 분야는 ▲아시아 지역 기후·물 분야 현안과 정보 공유 ▲기후·물 관리 관련 기술사업 및 입법·정책 분야 교류 ▲기후물 분야 회의와 학술행사 등 상호 참여 및 협력 ▲기후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공동 연구 ▲국내 기후·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기후·물 라운드 테이블 공동 개최 및 참여 등이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기후·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축적해 온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또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 서수 공사 홍보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20여 곳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프로세스 ▲해외사업 추진현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이해 및 적용 등이 소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코트라, 칠레서 495만달러 수출계약 성과

국내기업 32곳·바이어 50곳 참여  
K-뷰티·식품 중심 1대1 수출상담  
칠레 유통망 통해 중남미 판로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맞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양국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한류소비재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해 업체·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했다. 이 전시상담회에는 32개 국내 기업이 참가했다.

B2B 수출상담회에는 칠레의 대표 슈퍼마켓체인 '쥬보', 종합유통그룹 '팔라벨라' 등 대형 바이어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1:1 상담이 진행됐다. ▲뷰티 ▲식품 ▲생활소비재 ▲산업제 ▲첨단기술 등 분야별로 구성된 상담장에는 현지에서 칠레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바이어·발주처 50여 개사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총 13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장에서만 49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도 도출됐다. 한국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유



지난달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한-칠레 비즈니스 파트너십' /코트라

통하는 A사는 칠레 바이어 B사와 스칸케 어 화장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A사는 B사에 스킨케어 제품의 칠레·중남미 유통·판매 대표권을 주고 B사는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인 '살코브랜드' 입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200만 달러 상당의 수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등을 여러 국가에 수출해 온 C사는 칠레 최대 유통망인 '쥬보'와 총 26만 달러 규모의 가공식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또 상담장 입구에는 식품·뷰티·바이오 헬스 분야 한류소비재 기업 제품 100여 종이 전시됐다. 칠레 소비자와 한국 유통망을 직접 연결하는 '역직구 플랫폼' 전용

관에는 K-팝 굿즈 등이 전시됐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지난 200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4년 발효 이후 양국은 소비재, 인프라, 광물 등 분야에서 교역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한-칠레 교역액은 200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25년 64억 달러로 급증했다. 주요 교역 분야는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의료기기, 농수산식품·뷰티, 구리·석유제품 등이다.

칠레는 또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으로,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K-팝·드라마·뷰티·식품 등 K-컬처 인기가 동시에 확산하며 현지 젊은이들 사이 한국 상품 및 문화 소비가 인기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칠레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인프라 개선, 방산 현대화, 에너지 전환에도 적극적"이라며 "FTA 체결 후 22년이 지난 지금 K-제품 수출이 크게 늘고 K-컬처 인기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부산항만공사, 피지컬 AI 항만기술 개발

HD현대상호와 피지컬 AI 연구 협력  
장비·운영·예방정비 기술 고도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장비 제조 전문기업인 HD현대상호와 '피지컬 AI 기반 항만 미래기술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항을 한국형 AI 스마트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앞서 양측은 지난 4월 전남 영암 HD현대상호 본사에서 기술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항만 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범위와 방향을 구체화했다.

주요 협력 부문은 ▲스마트항만 솔루션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항만장비 연구개발 ▲항만 운영시스템 연구개발 ▲항만장비 예방 유지보수 기술 연구개발 ▲크레인 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등이다. 특히 이 협약은 기술 적용 범위를 개별 장비에 한정하지 않고, 장비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기술까지 확대했다. 항만운영 전 과정의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송상근(왼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김재을 HD현대상호 사장과 '피지컬 AI 기반 항만 미래기술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피지컬 AI 항만 전략'에 맞춰, 부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며 "스마트 항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HD현대상호 사장은 "국내 하역장비 제조 역량과 피지컬 AI 기술을 연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항만장비,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분야를 아우르는 상호성 있는 기술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전기안전공사 경영진, 폭염 대응 특별점검

경북·경남 등 주요 설비 현장 찾아  
휴게시설·보냉장구·작업환경 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폭염 속 외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설비 점검·검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2일 공사에 따르면 남화영 전기안전공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경남 등 영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 사장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철곡지사의 교육시설을 찾아 현장 속 폭염 대응 체계 및 작업환경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작업장 휴게시설 상태와 보냉장구 구비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사는 이날 11일까지 경영진이 직접 경북, 대구, 전남광주 등 주요 설비 현장을 찾는 특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작업 강도·시간 적정성



남화영(오른쪽 2번째)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이 7월31일 공사 구미철곡지사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전담 관리자 지정 여부 ▲신규·기저질 환 직원 등을 살폈다. 고위험 관리자 집중관리를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과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남 사장은 "안전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앞으로도 경영진이 현장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어촌공사, 가뭄 속 농업용수 확보 총력

양수장 가동 등 비상체계 강화  
저수율 실시간 관할·관계기관 협력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우 부족에 따른 저수율 저하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본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에서 김인중 사장 주재로 가뭄 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소관 이사와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가뭄 현황과 용수 공급 상황,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기 가뭄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뭄 비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양수장 가동, 하천수 확보,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에 나선다.

특히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상 상황과 저수율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업인과의 협력해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을 추진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가뭄과 풍수해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후 위기 상황인 만큼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사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농업인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용수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인서울 학생부교과 합격선 ‘인문 2.28·자연 1.92등급’

올해 최종등록자 70% 컷 분석  
자연계 합격선, 5년간 꾸준히 상승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선도 올라

2026학년도 서울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이 인문계 2.28등급, 자연계 1.92등급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 합격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며 처음으로 평균 1등급대에 진입했다.

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최종등록자 70%컷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자연계 교과전형 합격선은 2022학년도 2.22등급에서 2023학년도 2.15등급, 2024학년도 2.13등급, 2025학년도 2.08등급, 2026학년도 1.92등급으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인문계는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 2025학년도 2.58등급에서 2026학년도 2.28등급으로 높아졌다. 2025학년도와 비교하면 합격선이 0.30등급 상승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전국 205개 대학의 9087개 학과로, 지역별로는 서울권 41개 대학, 경인권 44개 대학, 지방권 120개 대학이다.

자연계 합격선은 최근 5년 연속 인문계보다 높았다. 두 계열의 격차는 2022학년도 0.23등급, 2023학년도 0.19등급, 2024학년도 0.44등급, 2025학년도 0.50등급, 2026학년도 0.36등급이었다.

경인권과 지방권 대학의 교과전형 합격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경인권은 인문계 3.37등급, 자연계 3.12등급이었으며 지방권은 인문계 4.35등급, 자연계 4.16등급으로 나타났다.

서류와 면접 등이 반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합격선이 상승했다. 서울권 대학은 인문계 3.04등급, 자연계 2.69등급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았다.

경인권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선은 인문계 3.81등급, 자연계 3.38등급, 지방권은 인문계 4.65등급, 자연계 4.39등급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문계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경제학부로 1.00등급이었다. 서울대 지역균형 국어교육과 1.14등급, 정치외교학부 1.15등급, 대구한의대 지역인재 한의예과 인문계열 1.17등급, 연세대 추천형 정치외교학과 1.20등급, 고려대 학교추천 정치외교학과 1.23등급 순이었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는 의약학계열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종등록자 70%컷 기준으로 연세대 추천형 의예과, 경희대 지역균형 의예과, 인하대 지역균형 의예과의 합격선이 모두 1.00등급이었다. 순천향대도 교과우수자·충남형지역인재·일반학생전형 의예과가 모두 1.00등급을 기록했다. 이 밖에 울산대 지역교과 의예과, 가톨릭대 지역균형 의예과, 아주대 고교추천 의학과, 강원대 일반교과 의예과, 동국

대 학교장추천인재 약학과, 순천대 교과일반 약학과도 1.00등급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고3 학생 수가 전년보다 3만7467명 늘어난 데다 내신 성적이 좋은 N수생도 수시모집에 상당수 지원하면서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7학년도에는 현행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다. 고3 학생 수는 43만520명으로 전년보다 1만3026명 줄지만, 2024학년도 39만4940명과 2025학년도 40만6079명보다는 많다.

현행 대입제도의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수시를 준비한 N수생이 다시 지원하고, 수험생들이 무리한 상향지원보다 안정지원을 택할 경우 합격선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현 고1·2 학생들은 기존 9등급제 합격 자료만으로 대학별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서울 초등학생 3000명에 AI·SW 체험교육

서울AI재단, 6개 초등학교 대상  
‘AI·SW 활성화 교육’ 운영  
교원에 AI 역량 강화 연수도

서울AI재단이 서울지역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운영한다.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험교육은 물론 주말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AI재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 AI·SW 활성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개원초, 서울대명초, 서울반원초, 서울신영초, 서울잡일초, 서울해누리초 등 6개 학교의 3~6학년 학생 약 3000명이다. 참여 학교는 AI·SW 교육 인프라와 디지털 학습환경,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와 연계해 AI와 SW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생들은 AI 윤리, 알고리즘, 데이터 이



서울개원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난 7월 진행된 ‘2026 AI·SW 활성화 교육’에서 블록코딩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해, 생성형 AI 활용, 로봇 제어와 코딩 등 AI·SW 핵심 내용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3~4학년은 AI 윤리와 블록코딩, 로봇 제어 등 기초 체험교육을 받고, 5~6학년은 AI 기반 로봇 구현과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에 참여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말 체험교육도 마련된다. 오는 8월 8일과 22일 서울 AI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화차별 3차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 학생들은 센터 주요 시설과 AI 혁신기업 기술을 체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한다.

참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초등 AI 교육 우수 사례와 생성형 AI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누구나 AI를 쉽고 올바르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이 미래 AI 인재가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오는 14일 ‘수원 국가유산 야행’ 열려

수원화성 배경 대표 야간축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시설을 무대로 한 야간 문화축제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열 번째 밤, 수원연향’이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다.

수원특레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수원화성과 인근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원의 대표 야간 축제다.

올해는 야행 개최 10주년을 맞아 ‘열 번째 밤, 수원연향’을 주제로 수원화성의 역사와 야경을 배경으로 사람과 빛,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밤의 축제를 선보인다.

특히 올하는 행사 공간과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용연 일대 중심에서 화성행궁 광장과 팔달문 인근까지 행사장을 넓혀 더욱 다양한 공간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지역 예술인들이 주요 거점에서 거리 예술 공연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행사는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등 ‘8야(夜)’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경과 야화 프로그램에서는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야간까지 연장 개방한다. 10주년 기념 점등식 ‘열 번째 밤, 함께한 빛’을 시작으로 화흥문과 수원천을 미디어아트로 연출한 ‘밤빛 품은 수원천’이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야로와 야사에서는 성곽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환경보호 플로깅 ‘쓰담쓰담 수원화성’, 해설사와 함께하는 ‘수원화성 달빛산책’, 모바일 스탬프 투어, 정조대왕과 장영영 군사들의 이동형 퍼포먼스 등이 마련된다.

야설 프로그램은 용연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밤빛 용연, 소리꽃이 피다’와 무예 뮤지컬 ‘1790’을 비롯해 국악, 재즈, 밴드 공연 등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 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목표”

해운대~달맞이교개 등 6.2km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전국 최초 대상지로 해운대 관광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운대 관광특구는 1994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낸 ‘글로벌 관광특구 사업계획서’가 문체부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은 지난 8월 지정된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를 포함해 관광특구 3곳을 운영 중이다.

사업에는 앞으로 2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해운

대·송정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전당~누리마루 APEC하우스~백스코~달맞이교개 등 6.2km가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구에선 ‘ALL-TIMEHAEUND AE’를 테마로 연중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AI 무인관광안내소와 외국인 스마트 결제, 지능형 CCTV도 도입한다. 호텔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맺어 숙박요금 급등을 막고, 맞춤형 체크아웃 시스템으로 체류 시간도 늘린다.

전재수 시장은 “30여 년간 살아온 인프라와 브랜드 경쟁력으로 전국 첫 글로벌 관광특구가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주시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 만들 것”

APEC 정상회의 경험 등으로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충 박차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역사문화자원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One More Night, Gyeongju’를 핵심 브랜드로 내세워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글로벌 브랜딩 및 해

외 홍보 ▲지속가능관광 인증체계 도입 ▲AI 기반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 ▲야간관광·신라문화 체험콘텐츠 확대 ▲외국인 간편결제 및 통합투어패스 구축 ▲AI 컨시어지 키오스크 설치 ▲외국인 관광택시와 순환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경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학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관광기업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은 경주가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 주요 교육 내용

###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조 넘어 본업 경쟁력으로… 유통업계 ‘AI 전환’ 속도전

GS리테일, 현장 적용 AX사례 공유  
롯데백, 입점 제안 등 원스톱 처리  
현대홈쇼핑, AI로 상품 자동 제작

유통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사업 본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장 진열, 상품 스캔, 파트너사 상담, 생방송 연출 등 영업 현장의 최전선에 AI를 직접 이식하는 ‘현장 중심 AI 전환(A X, AI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 AI 활용 분야가 고객 분석과 파트너사 관리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제작과 방송 운영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GS리테일은 현업 임직원들이 스스로 업무 문제를 정의하고 A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조직 체계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최근 전자 차원의 ‘AX 현장 사례 공



AI 세일즈 에이전트 관련 가상 이미지.

/신세계

유회’를 개최한 GS리테일은 개별 점포의 영업 활성화를 돕는 ‘점포 진단 사이트’와 매장별 배달 가능 권역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배달 품질 대시보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대거 선보였다. 단발성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도록 안전한 실증 환경인 ‘샌드박스’와 공통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빌리지’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엔지니어(FDE)를 직접 육성해 전사의 AX 자산화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AI를 영업과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려는 시도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업계 최초로 입점 제안 및 상담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AI 비즈센터’를 론칭했다. 파트너사가 브랜드 정보를 입력하면 검증 양식에 맞춘 제안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제안 내용을 최적의 담당 부서와 실시간 매칭해 상담 검토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AI 기반 초개인화 고객 분석 기술을 세계적 권위의 국제 머신러닝 학회(ICML) 논문에 등재했다. 약 2억 건의 쇼핑 데이터를 활용한 이 기술은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객단가를 최대 46%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신세계는 내년 초 ‘AI 세일즈 에이전트’를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NS홈쇼핑은 자체 구축한 데이터·AI 플랫폼 ‘NSIST’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AI ‘엔송이’와 생방송 연출 AI ‘NAISSolution’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방송 후처리 작업 시간을 4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하는 등 최대 8배에 달하는 높은 생산성

향상 성과를 거두었다.

홈쇼핑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자동화와 업무 효율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GS샵은 대본 작성, 세트 디자인, 조명 설계, 자막 검수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AI를 활용하면서 올해 1분기 AI 기반 콘텐츠 제작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은 AI 상품 자동제작 시스템으로 지난해 2000편 이상의 영상을 제작했으며, 방송 콘셉트 이미지 생성에도 AI를 적용해 제작 시간을 이틀 이상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협력사 지원과 고객 응대에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협력사 전용 AI 챗봇으로 전화·게시판 상담을 자동화해 관련 업무량을 약 80% 줄였고, 롯데홈쇼핑은 고객이 AR로 말한 주소를 AI가 문자화·검수하는 ‘주소박’ 솔루션을 도입해 상담 처리 속도를 높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식품업계, 제로·저당 넘어 ‘착한 성분’ 경쟁

새로운 소비 키워드로 건강지능 부상  
세분화된 성분 설계, 제품 경쟁력 좌우

식품 소비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일상 속 세심한 성분 관리로 급변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제시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건강지능(Health Intelligence Quotient, HQ)’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식품·유통업계의 R&D(연구개발) 및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활용하는 소비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제로(Zero)·로우(Low)’ 마케팅을 넘어 세분화된 맞춤형 성분 경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먼저, 발효유 및 간편식 시장에서는 기존 스티디셀러의 체질 개선을 통해 충성 고객을 락인(Lock-in)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려는 전략이 뚜렷하다.

풀무원다논의 ‘액티비아 화이트플레인 2종’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설탕무첨가’ 설계를 통해 당류 섭취 부담을 덜어냈다. 제온과 동일한 36.5℃에서 배양해 장 끝까지



오투기 마녀스프, 하림 닭가슴살햄 햄.

지 살아기는 핵심 유산균을 바탕으로 컵(80g) 및 병(130ml) 당 500억 CFU 이상의 프로바이오타스를 담았으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더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특히 마시는 ‘액티비아 컵 화이트플레인(130ml)’과 떠먹는 ‘액티비아 컵 화이트플레인(80g)’은 각각 70kcal, 45kcal로 열량을 낮췄고, 최근 ‘요거트 식사화’ 트렌드에 발맞춰 400g 대용량 제품까지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식단 관리족을 겨냥한 간편식과 육가공 시장 역시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오투기는 각종 채소를 넣어 끓인 낮은 열량·지방의 ‘LIGHT&JOY 마녀스프 2종(채소가득 마녀스프, 고기가득 마녀스프)’을 통해 조리 부담을 줄인 가벼운 한 끼 대안을 제시했다.

하림은 100%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든 햄 ‘참’의 신제품 4종(허브&페퍼, 올리브



&할라피뇨, 청양마요, 와사비마요)을 통해 16시간 이상 냉장 숙성으로 식감을 살리는 한편, 기존 닭가슴살 가공육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차별화된 품미로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음료 업계와 카페 프랜차이즈는 맛과 청량감에 영양 성분을 더한 웰니스 제품을 앞세워 여름 음료 시장의 객단가 방어와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더벤티는 타우린 1000mg과 비타민 350mg을 함유해 에너지 보충을 돕는 저당·저칼로리 스파클링 음료 ‘밸런스업 스파클링’ 3종(제주청귤 스파클링, 리치 캐모마일 스파클링, 트로피칼 스파클링)을 선보였다. 웬진식품 역시 대표 장수 브랜드인 유자 음료에 탄산감을 결합한 ‘내사랑 유자C 스파클링’을 출시하며, 국내산 유자 과즙과 비타민C 하루 권장량 100mg을 담아 기능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결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행정 제재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번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하며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행정제재를 넘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피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 방식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르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형태인 쿠팡캐시도 허용됐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법원 판례와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 쿠팡이 앞서 자체 제공한 할인쿠폰의 실제 사용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는 유출 정보의 높은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꼽혔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상세 주문내역 등 일상과 밀접한 사생활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또 해커가 상당 기간(2025년 4월~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알림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반영됐다. 유출 기기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상적 이용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회원 332만여 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여 명 등 총 3756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24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사자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김서현 기자

## SSG닷컴, 여름 클리어런스 최대 60% 할인

인기 브랜드 특가전

SSG닷컴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열고 여름 클리어런스를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에서는 패션 브랜드 ‘탁키슈에프’가 최대 45% 할인에 추가 20% 혜택을 제공하며, ‘닥스’, ‘헤지스’, ‘스톤헨지’ 등 잡화 브랜드도 최대 60% 할인한다. 뷰티 브랜드 ‘링콤’은 대표 상품 구매 시 샘플을 볼품 용량만큼 추가 증정한다. ‘코오롱 스포츠’의 역시즌 외투를 비롯해 ‘스메그’, ‘삼성전자’ 등 가전과 유아동 상품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에는 신세계몰 상품 최대 10% 할인 쿠폰과 신세계백화점몰 상품 8%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7% 청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일 두 개의 브랜드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오늘의 브랜드’ 행사도 진행한다. 3일 ‘나이키’와 ‘무쿠’를 시작으로 ‘바이레도’, ‘로보락’, ‘라비앙’, ‘드래곤디퓨전’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행사 브랜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5% 할인 쿠폰도 별도로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 롯데마트, 베트남 17호점 박장점 오픈

북부 산업도시 공략 본격화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북부 박장시에 현지 17호점인 ‘박장점’을 개점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호찌민 등 베트남 남부를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해온 롯데마트는 북부에서는 하노이 내 2개 점포를 운영해왔다. 이번 출점은 하노이 도심을 넘어 북부 주요 도시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박장은 최근 공업단지 개발과 글로벌

제조기업 진출이 이어지며 IT·전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확대된 베트남 대표 산업도시다. 젊은 근로자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지역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쇼핑과 외식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박장점은 영업면적 약 1940㎡ 규모의 중소형 점포로, 취급 상품의 약 89%를 식품으로 구성한 그로서리 중심 매장이다. 퇴근 후 장보기와 가족 단위 쇼핑 수요를 고려해 동선을 간결하게 설계했으며, 웰니스와 키즈 등 상권 특성을 반영한 특화



롯데마트 박장점 오픈 기념 ‘요리하다 키친’에서 현지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롯데쇼핑

매대를 마련했다.

K푸드는 1300여 종을 갖췄다. 한국 라면과 김치 전용 매대를 운영하고, 롯데마트 PB와 롯데웰푸드 상품을 모은 ‘롯데존’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크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UV-A 98% / UV-B 99% 차단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넥슨, 세이브더칠드런에 8800만원 기부

넥슨이 사내 기부 프로그램 '더블유(Double U)'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8800만원을 저소득 가정 화상 아동의 수술 및 치료 지원에 사용한다. 넥스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저소득 가정 화상 환자 지원 사업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넥슨



우리은행, 고객 제안 금융서비스에 반영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실무자로 구성된 '금융 현장소통반'과 함께 하는 '2026년 우리은행 고객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고객패널 간담회'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 요청한 개선 사항을 실제 반영해 금융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은행



BNK금융, 동남권 해양산업 금융지원 강화

BNK금융그룹이 동남권 지역 내에서 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해양금융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BNK금융은 한국해운협회와 '동남권 해양금융 활성화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NK부산은행 및 BNK경남은행을 중심으로 해양금융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BNK금융그룹



소진공, 소상공인 컨설팅 20년 성과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 점검과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에 나섰다. 소진공은 인태연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소진공

**인사** ◆파이낸셜뉴스△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부국장대우) 최갑천 △생활경제부장(부국장대우) 오승범 △증권부장 김병덕 △자본시장부장 김경아 △건설부동산부장 안승현 △국제부장 박신영 △중기벤처부장 김기석 △정보미디어부장 조운주 △정책부문장 겸 경제부장 윤경현 △전국부장 정지우 △사회부장 김영권 △문화스포츠부장 김성환

**부음** ▲정복득(87)씨 별세, 정연하·일정(TMG 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사장)·연주·기숙씨 부친상, 김창섭씨 빙부상, 윤현주·박경화씨 시부상 = 대구 영남대 의료원 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8월 3일 오전 8시, 053-620-4670

# 삼양식품, '불닭' 앞세워 방한 관광객 유치 나선다

문체부와 한국관광 홍보 업무협약  
제품 QR·해외 유통망 연계 캠페인  
방콕서 K-푸드·문화 체험행사 진행

삼양식품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방한객 유치 확대 및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릴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의 파급력을 실제 한국 방문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민간의 해외 마케팅 역량과 정부의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 밀착형 관광 홍보 모델을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주요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닭볶음면은 특유의 매운맛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한국의 국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31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한국관광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매력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한국의 맛을 즐기는 경험이 실제 대한민국 방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단단한 '교량'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K-푸드'의 파급력을 방한 관광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에게 한층 더 매력적인 '대체 불가 여행지'로 각인시킨

다는 구상이다.

삼양식품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현지 유통 채널에서 삼양식품 제품을 접할 때 한국 관광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 관광 해외 광고 및 정보'와 '삼양식품 제품콘텐츠'를 연계한 대규모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QR코드가 있는 '불닭볶음면' 및 소스 제품을 활용해 한국 여행과 삼양식

품 제품의 특징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소비자 행사를 진행한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6 한국 문화관광 페스티벌 러브 코리아(Love Korea, 8월21~23일)'에서는 삼양식품의 시식 체험으로 한국 라면을 즐기면서 한국의 문화와 놀이 등을 경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한 공식 온라인 홍보 채널을 상호 연계해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채로운 관광 정보를 확산하는 공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양식품이 가진 브랜드 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더 많은 분들께 우리의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월드푸드, 세계유산위서 K-스낵 홍보

빼빼로·제크 등 대표 제품 소개  
광화문·일월오봉도 패키지 주목

롯데월드푸드가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각국 대표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K-스낵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롯데월드푸드는 지난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동안 162개국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대표단 라운지에서 빼빼로와 제크 등 자사 대표 제품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대표단 라운지에서는 약 3000명에게 제품이 제공됐다. 빼빼로 아몬드와 초코 제품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광화문과 일월오봉도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담은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도 각국 대표단에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해당 기프트 세트는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가 결정된 7월 25일 제공됐다.

현장에서는 한국의 공권과 지역명을 활용한 제품 패키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5일 오전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위원국 대표단에게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이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롯데월드푸드

졌다. 대표단들은 패키지 디자인과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제품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제크와 미니야과 등 다른 제품에도 관심이 이어졌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추가로 제품을 가져가기도 했다.

일반 관람객이 찾은 대한민국관에서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빼빼로 체험 행사가 열렸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러스트를 활용한 타투 체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빼빼로가 제공됐다. 회사 측은 행사 기간 대한민국관 방문객이 3만 명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 한국잡월드 “어린이 눈높이 금융체험 확대”

하나은행과 은행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잡월드가 하나은행과 협력해 어린이체험관 안에 '은행 직업체험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가 직접 은행원이 되어 통장을 발급하고 입출금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돈의 순환과 저축의 원리를 스스로 익히도록 꾸민 공간이다.

체험은 '하나은행 한국잡월드지점'을 주제로 창구부터 금고까지 실제 은행과 유사하게 구성했다. 통장을 주머니에서 뽑아 주는 통장 프린터와 금고 공간 등 실제 금융 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실제 은행에 온 듯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은행원과 고객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은행 창구 업무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또 통장 개설 신청서 작성과 번호표 발급을 시작으로 용돈 통장·내공 통장·내집 통장 등 목적에 맞는 통장을 만들고, 체험용 화폐 '조이(Joy)'를 활용한 입출금을 진행하며 저축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한국잡월드는 이번 체험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금융과 직업을 함께 배우는 실질적인 경험의 장이 돼, 어릴 때부터 계획적인 저축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썸머 페스타’ 이달까지 연장

현대자동차가 코나 일렉트릭과 더 뉴 그랜저 등 인기 차종 12개에 대한 프로모션을 확대한다.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겪고 있는 부진을 털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고객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행 중인 '썸머 페스타' 프로모션의 대상 차종을 늘리고 운영 기간도 8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기존 7개 차종에 전기차 4종(아이오닉 9,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과 더 뉴 그랜저가 추가돼 총 12개 차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7월 프로모션 대상이었던 팰리세이드, 싼타페, 쏘나타, 스타리아와 제네시스 GV80, GV70, G80도 할인 혜택이 이어진다.

가장 할인 폭이 큰 모델은 전기차 아이오닉 9로 구매 시 최대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도 할인을 제공한다. 8월 한 달간 GV80은 최대 5%, G80은 최대 4%, GV70은 최대 3% 각각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양성호 기자 ysw@

## 한국콜마, 中 생산기지 식약처 CGMP 획득

국내 화장품업계 해외 공장 최초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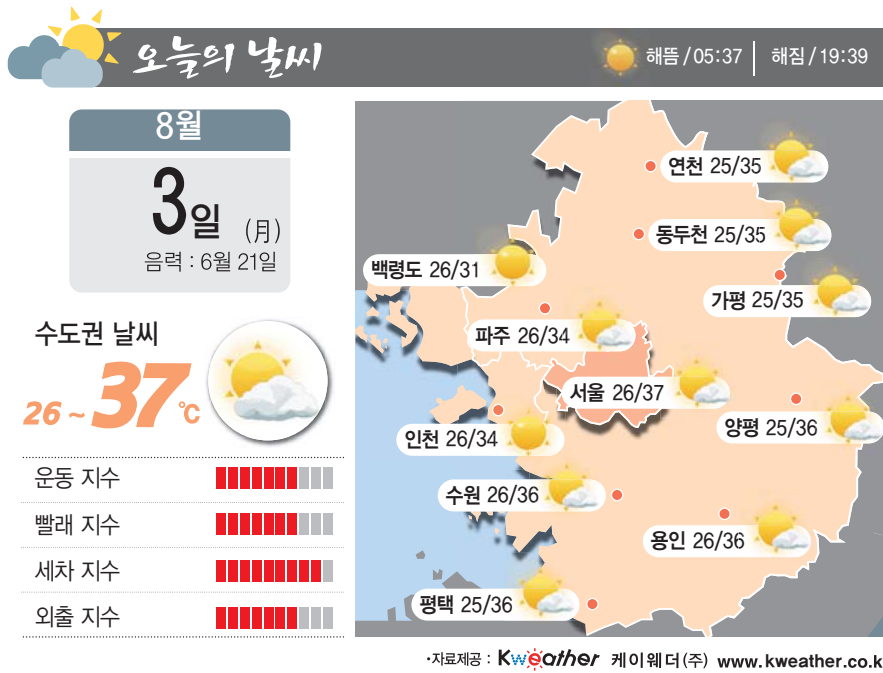
한국콜마가 글로벌 생산 체계를 확대 구축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콜마는 중국법인 무석콜마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과 동등한 수준의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로는 최초 사례다.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제에 맞춰 CGMP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4166곳 가운데 식약처 CGMP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184개로 전체의 약 4.4% 수준이다.

무석콜마의 경우, 식약처가 중국 현지에서 실사를 진행해 원료 입고, 제조과정, 품질, 완제품 출하 등 전체 과정을 점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동의 없는 통화녹음,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다



김 대 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일반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녹음이 가능한 시대다. 이는 법률 분쟁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소송 등에서 증거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에 따라 때로는 사건의 향방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화, 통화 등에 대해 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녹음을 한다. 그런데 대화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지, 대화에 녹음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달라진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불법 녹음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대화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화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외부인이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화자가 녹음을 한다는 것은 녹음하려고 하는 의사와 녹음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테면, 녹음기를 몰래 대화자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대화자가 이를 모른 채 다른 사람과 대화했는데, 그 대화내용이 녹음되었다면 녹음기를 소지한 대화자는 녹음의 의사나 녹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화자의 녹음이라고 볼 수 없다. 녹음행위자는 녹음기를 대화자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사람이 된다. 따라서 녹음행위자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녹음행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된다.

대화자의 녹음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대화자중 1인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될 것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 녹음, 녹음된 음성의 방송, 배포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명시적인 반대의를 표시했는지 여부다. 상대방이 대

화시작전에 명시적으로 녹음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녹음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녹음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침해되는 음성권자의 음성권 침해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클 경우에는 비밀녹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녹음이나 공적인물의 발언에 대한 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돼(결국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그 행위를 '위법'으로 보지 않음)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음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대부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동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녹음행위는 허용하되, 이를 제3자 또는 공중에 유포하는 것은 금지하는 식으로 그 사용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다. 그래야 녹음과일이 음성권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 배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 AI는 넘치는데 왜 ‘생활 AI’는 없을까



기 지 수 준

최 빛 나  
(IT부)

네이버와 카카오를 취재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AI’라는 단어를 듣는다. AI 브리핑, AI 검색, AI 에이전트, AI 데이터센터, AI 팩토리, AI 반도체, AI 투자 등.

발표만 보면 한국은 이미 AI 강국이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뒤처지지 않는다.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엔비디아, 브룩필드와 함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카카오는 카나니를 앞세워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투자 규모와 기술 경쟁력만 놓고 보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겠다는 목표도 충분히 현실적이다.

그런데 취재를 마치고 회사 밖으로 나오면 문득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 국

민이 가장 많이 쓰는 국산 AI는 무엇일까.’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챗GPT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퍼플렉시티와 제미니도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국내 AI 서비스는 이름은 알지만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 오히려 그 반대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AI 모델 성능과 추론 능력, 멀티모달 기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기술보다 생활이다.

플랫폼의 성공은 원래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원하는 정보를 가장 쉽게 찾게 했고, 카카오톡은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소통 창구가 되면서 생활의 기준이 됐다. 결국 플랫폼은 기술을 습관으로 만드는 산업이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시 기술이 뉴스의 중심이 됐다. GPU는 몇 개를 확보했는지, 파

라미터는 얼마나 되는지, 벤치마크 점수는 얼마나 올랐는지가 화제가 된다. 그러나 이용자는 그런 숫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도 이 서비스를 열었다.” “없으면 불편하다.” 그 경험만 기억한다.

AI 경쟁도 결국 그 지점에서 승부가 난다.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기업보다 더 자주 실행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이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검색과 메신저라는 ‘국민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 더 큰 기대를 받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AI 모델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민 AI다.

AI 경쟁의 마지막 승부처는 데이터센터도, GPU도 아니다. 국민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누르는 AI를 누가 만들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기업이 AI 시대의 진짜 플랫폼이 될 것이다.

/vitn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일 (음 6월 2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년생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집니다. 72년생 오늘 하루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갑니다. 84년생 잊 사람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세요.



49년생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61년생 모든것이 이뤄지고 앞길도 밝습니다. 73년생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쉽게 이루어 지겠습니다. 85년생 노력에 결실이 있겠습니다.



50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를 수 없습니다. 62년생 긴장을 풀지 마세요. 74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습니다. 86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51년생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습니다. 63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75년생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87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52년생 지금은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64년생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76년생 억지로 밀어붙여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88년생 가까운 친구와의 하세요.



53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65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77년생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89년생 큰 낙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4년생 서두르면 눈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66년생 뜻 밖의 손실이 생깁니다. 78년생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을 잡고 있지 마세요. 90년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다.



55년생 뽀족한 것을 조심하세요. 67년생 좋거나 나쁘지 않고 대체로 원만합니다. 79년생 문제가 있지만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91년생 시비하지 마세요.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증가 합니다. 80년생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57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69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81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93년생 조금씩 하지 마세요.



58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둔다는 법입니다. 70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82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94년생 구관이 명관입니다.



59년생 서둘러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1년생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세요. 83년생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5년생 옛 친구를 멀리 하지 마세요.



## 김상회의四季

병오년 백중

음력 7월 15일이 양력으로는 8월 27일 큰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암자에서도 백중은 석가탄신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이다. 백중일의 유래는 불교가 그 시발점이지만 입제·초재·막제까지 최소 일곱 번의 일정으로 제사를 올리며, 다른 이름으로는 백중, 망혼일, 중원,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린다. 지옥문이 열리는 날로서 조상의 혼이 극락왕생 내지는 도과를 얻는 기회를 얻는 날로써 석가모니의 상수 제자 중 한 명인 목련존자의 효심을 바탕으로 우란분절 법회를 열어 영가를 천도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부처님 제자 중 신통이 제일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도 지옥고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다. 비탄에 빠진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슬퍼하며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정성껏 재를 준비하여 꽃과 과일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우안거를 마치고 나오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라 하였다. 공양을 성대히 받은 수행자들은 마음을 담아 영가들의 천도를 발원한다.

괄목할만한 것은 제사의 당사자들은 조부모님 등 7대에 이르는 선망 부모, 집안의 친족·연족은 물론 가족이 아닌 모든 인연 영가, 이름하여 이름모를 유주무주 영가까지도 포함된다. 인연으로 함께 머무는 모든 존재를 포함하니 개인 천도제와 달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합동 천도제라고 할 수 있다.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지옥고 또는 4악처를 떠도는 모든 영가가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모든 것이 바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를 하며,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족과 후손들이 정성껏 공덕을 지어 올리면 그 공덕이 영가는 물론 계속 주고받는다. 영가들이 편안하면 산사람들도 편안하다. 명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965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2069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탁한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운 고난이도의 퍼즐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365

결합형스도쿠

컬러스도쿠110

6

2

9

8

3

7

9

6

2

6

4

6

8

2

4

5

9

2

7

5

6

8

4

1

3

3

9

2

7

3

6

7

1

9

2

3

1

9

7

8

9

7

4

8

3

6

4

2

3

9

2

7

3

6

7

1

9

2

6

4

6

8

2

4

5

9

2

7

5

6

8

4

1

3

스도쿠365

결합형스도쿠

컬러스도쿠110





수도권매립지공사  
라오스 찾아  
기술노하우 공유  
L1

metro®

Life

유통업계  
AI 전환 속도  
핵심동력 활용  
L4



# “태극기 품고 42.195km… 세계에 韓러너의 단합 보여줄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 이 봉 건 단장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마라톤. 단순한 달리기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수준의 달리기를 수십 킬로미터(km) 달려야 하는 종목이다.

마라톤 대회 중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앞에 뛰는 주자가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국가의 주자들도 좋아진 시야 속에서 넘실거리는 태극 문양을 쫓아간다면 일생에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봉건 ‘제2회 국위선양 프로젝트’ 단장은 베를린 국제 마라톤에서 도전 이후 7년 만에 시드니 국제 마라톤에서 그 ‘짜릿하고 황홀한’ 경험을 다시 선보이려 한다.

### ◆6대 마라톤 서브쓰리(Sub3) 달성한 ‘마친남’, 베를린 이어 시드니로

강남 모처에서 만난 이봉건 국위선양 프로젝트 단장은 앉자마자 프로젝트의 의미,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 달리의 매력, 수준별 운동법 등을 설명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아스팔트 도로를 쭉쭉 치고 나가듯이, 그는 머릿속에 온통 마라톤 생각만 있는 ‘마친남(마라톤에 미친 남자)’ 같았다.

이 단장은 금융사에 종사하던 중 사내 동호회로 마라톤을 접했다. 42.195km를 3시간 안에 뛰는 ‘서브쓰리(Sub3)’에 도전했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법을 달리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바꾸며 40대 중반의 나이에 결국 서브쓰리에 성공했다.

‘마친남’의 도전은 서브쓰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 단장은 세계 6대 마라톤(도쿄·보스턴·런던·베를린·시카고·뉴욕)에서 모두 서브쓰리를 달성하는 대업을 이뤘다. 아마추어 러너로서 이 기록을 세운 사람은 국내에서 손에 꼽는다고 한다.

이 단장은 지난 2019년 한번 더 베를린 국제 마라톤으로 향했다. 100명의 아마추어 러너들과 함께였다. ‘제1회 국위선양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명의 한국 마

이봉건 ‘제2회 국위선양 프로젝트’ 단장이 마라톤 대회 출전을 위한 연습을 하는 모습.



### 사내 동호회로 접한 마라톤에 빠져 세계 6대 마라톤에서 서브쓰리 달성

### 2019년 베를린서 국위선양 프로젝트 국내 아마추어 러너 100명과 함께 달려 7년 만에 시드니에서 프로젝트 재개 태극 유니폼 입고 국가 위상 높일 것

### 한계 극복한 완주, 엄청난 행복감으로 실패 두려워 말고 마라톤 도전해보길

라토너들이 태극기와 한반도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베를린 국제 마라톤에 참가했다. 마침, 동·서독 통일의 시발점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었고, 손기정 선수가 1936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베를린 마라톤이어서 더 의미가 컸다.

이 단장은 베를린에서의 경험을 시드니에서 확장하려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시 멈춰세웠던 국위선양 프로젝트를 7대 국제 마라톤 대회로 평가받는 시드니 국제 마라톤에서 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다.

### ◆“달리기를 국위선양으로, 단합의 힘으로 애국”

이봉건 단장은 국위선양 프로젝트를 아마추어 러너들이 더 잘 뛰기 위한 무형(無形)의 노력을 국위선양으로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아마추어 러너들이 산과 들을 열심히 뛰면서 노력하는데, 이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땀과 노력을 유형화하기 위한 ‘단합’이 필요하다”며 “해외에 나가서 단체 활동으로 보여주면 국위선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단장은 “메이저급 국제 마라톤 대회는 각 국가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국 아마추어 러너 100여명이 단합된 힘으로 한국과 태극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국위선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마라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이고, 자신을 가뒀던 틀을 깨면서 성장할 기회다. 이 단장은 ‘자기 성장’이라는 마라톤의 가치가 널리 퍼지면 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위선양 프로젝트는 100여명의 러너들이 수백만원의 대회 참가비, 체류비, 식비 등을

사비로 내서 참가한다. 이 단장이 100여명이 출전할 수 있는 엔트리를 확보했고, 동호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러너들을 모았다. 서브쓰리를 기록한 러너들도 다수 참여한다. 러너들은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시드니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시드니 현지 한인 단체와 기념행사와 마라톤 대회 출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촬영도 추진한다.

이 단장은 “만약, 마라톤을 해서 앞 주자를 추월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 달려서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때를 생각해 보자”며 “그 앞 주자의 등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으면, 태극기는 뒤 주자에게 정말 높은 위상으로 다가오고 평생 잊지 못하는 문양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회 참가 준비와 후원 모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단장은 “7년 만에 국위선양을 위해 100여명의 한국인 러너들이 해외로 가는데, 아직 후원 모집이 부족하다”면서 “러너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후원이나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도전의 끝판왕 마라톤, 한번 즐겨보라”

이봉건 단장은 30대 중반 5km 마라톤을 뛰고 바로 풀코스 마라톤을 뛰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이 단장이 기록한 풀코스 기록은 4시간 30분대. 이 단장은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절뚝이며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이 단장은 담배도 끊고 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법을 병행해 서브쓰리를 달성하게 된다.

이 단장은 “최근 어떤 철학 책을 봤는데, 자기 자신이 어려운 일을 극복했을 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믿게끔 되기 때문”이라며 “마라톤도 그렇다. 마라톤을 뛸 때, 완주하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밀려오는 성취감이 대단한 행복감을 준다”고 했다.

마라톤은 ‘개인 종목’이지만, 함께 하면 더 잘 뛸 수 있다는 게 이 단장의 지론이다.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멀리 가면 위험하고 힘들고 외롭고 혼자서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같이 가면 서로 이를 보완해 주면서 힘든 역경을 같이 이겨낼 수 있다. 마라톤이 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마라톤은 말 그대로 도전”이라며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말이 있다. 도전하지 않는 데 성공은 없다. 6대 메이저 대회 도전이 저에겐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시드니 마라톤에 참가하는 국위선양 프로젝트 러너들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다. 저마다 삶의 이야기를 품고 시드니를 달리는데, 우리도 못 달릴 이유 있을까. 신발장에서 먼저 쏘인 운동화를 한 번 꺼내보자.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이봉건 단장이 지난 2019년 제1회 국위선양 프로젝트인 베를린 마라톤에 참가한 러너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창원 경기, 이틀 연속 폭염 취소…부산 경기 30분 지연 개시  
▲씨름 최정만, 문경오미자대회서 통산 26번째 금강장사 /사진 뉴스시스

▲‘3연패 도전’ 다저스, 트레이드로 사이영상 투수 스쿠벌 영입  
▲이정후, 샌디에이고전 1안타·3할 타율 붕괴…대주자 송성문, 도루 실패

▲월드컵 침묵은 잊어라!…손흥민, MLS 4경기 연속골 행진  
▲박정민·손민수·정재형 출연 ‘계춘 휴(休) 복&뮤직 페스티벌’